

# 문수사 대응전 보물 승격 추진

고창군, 보존·활용방안 모색 학술대회 열어

‘고창 문수사 대응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1호)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고창 고인돌 박물관 입체영상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 문수사 대응전은 조성 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1876년(고종 13)에 고창현감 김성로의 시주로 목암대사가 다시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다포계 양식의 맞배지붕으로 지어진 점이나 쇠서(전각의 기둥 뒤에 덧붙이는, 소의 혀와같이 생긴 장식)의 조각 수법도 특이해 역사학은 물론, 건축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문종 교수(전북대)가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항미 교수(광주여대)가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건축적 특성’, 이어 문화재청 김석희 사무관이 ‘고창 문수사(대응전)의 보존과 활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뒤이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장인 이재운 교수(전주대)를 좌장으로,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이상희 목원대 교수, 김운상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역사적·건축학적 가치 검증과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보물 제1918호인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 여래삼불좌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고창 문수사의 대응전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고창 고인돌 박물관 입체영상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달 29일 비전대 대회의실에서 후진학선도형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여성 전문인력 채용 ‘앞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주비전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달 29일 대회의실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와 후진학선도형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후진학선도형사업단장), 김순정 후진학선도형사업부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안효성 후진학선도형사업팀장, 백하연 사업담당, 이운애 센터장, 신향 팀장, 이은석 부팀장, 정해숙 책임취업상담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핵심 인재 양성 및 여성 전문인력 채용에 앞장서며, 인적·물적 지원 및 교육콘텐츠 교류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지역사회 주민 및 재직자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산학관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및 교육콘텐츠 교류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 및 기업의 핵심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발굴 지원 등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김순정 평생교육원장의 사업추진 성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전주비전대학교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함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라북도 여성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정석훈 본부장과 김순정 평생교육원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후진학선도형사업단 사업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직업교육거점센터의 산·학·관 협의체 운영 거버넌스 체계 활성화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및 핵심 인재양성에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소박한 선-물’ ... 가족사랑 기획전시 4일 개막

정읍시립미술관서... 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45점으로 구성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휴관했던 정읍시립미술관이 생활 방역으로 방역체계가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문을 연다.

시립미술관은 6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74일간의 일정으로 다양하고 재미난 작품들로 구성된 가족사랑 기획전시 ‘소박한 선-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45점으로 구성된 기획전시다.

서양화와 한국화, 판화 작업의 평면작품과 다양하고 참여 가능한 입체·설치작품, 미디어·인터랙티브 아트 등 장르별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방역 지침 준수 시행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개인 소독제 구비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정해진 등



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단체이용(관람)과 전시 해설 서비스는 중단 예정이고,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시간대별 이용(관람) 인원을 조정해 진행하고 상설체험은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소장작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족들과 함께 시립미술관을 방문해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미술관(063-530-6420·64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순창 ‘페이지’, 청춘마이크 전복권 선정

순창의 젊은 음악예술인들로 구성된 ‘페이지’ 그룹이 최근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복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버스킹 공연’에 5회 참여하게 된다.

그들 페이지는 순창군 예비군 지역대 군인들로 결성된 S.O.S(사운드 오브 순창)의 리더보컬 출신 김관우와 지난해 ‘동네앨범’ TV조선 프로그램에서 GOD 김태우와 함께 무대를 섰던 음악예술인 이덕현이 합심하여 만든 그룹이다.



특히 김관우는 순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알리기 위해 작곡된 ‘순창이 참 좋다’의 리더보컬로 참여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민을 위해 ‘하루하루’라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 지역민을 위로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지역

회합에 기여하고 있다.

군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면서 “음악인들이 경험을 쌓고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길거리 버스킹 무대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순창=이양림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